 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 미래청조 금융 • 따뜻한 금융 • 튼튼한 금융
보도	배포 시부터 즉시		배포	2016.7.22.(금)	
책 임 자	금융위 글로벌금융과장 탁 윤 성(02-2100-2880)			담 당 자	현 지 은 사무관 (02-2100-2881)

제 목 : 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 논의결과

1. 개요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7.21일 중국인민은행이 주최한
금융안정위원회(FSB)* 성도 총회에 참석하였음

* FSB(Financial Stability Board): G20이 부여한 과제에 따라 금융 규제·감독 국제기준 등을 조율·마련하고 금융당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기구

- 금번 총회에서는 24개국 및 EU의 금융당국과 바젤은행감독위원회 등 국제기준 제정기구의 최고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을 진단하고, 그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추진해온 금융규제 강화의 경과와 성과, 향후 계획을 논의

2. 주요 논의내용

- (브렉시트) FSB는 브렉시트 결정으로 초기에 시장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나,
 - 그간의 금융규제 강화의 효과로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제고되었고 영국·미국·스위스 등 관련국 금융당국이 시장과 명확히 커뮤니케이션하여 신속히 회복되었다고 평가
 - EU소재 은행들의 수익성 저하와 기존 부실자산이 잠재적 취약요인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당국의 면밀한 모니터링을 주문

- **(금융규제 영향)** 그간의 G20/FSB의 금융규제 강화의 부작용으로 시장유동성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FSB 검토 결과 평소 시장 유동성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사채 및 국채 시장의 유동성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어 계속 분석·모니터링하기로 결정
- **(거시건전성)** FSB는 IMF, BIS와 함께 9월 G20정상회의 전 거시건전성 정책 결정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관계당국이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장의파생)** 감독당국이 원활히 장의파생 거래정보를 보고받고 활용·해의 당국등과 공유할 수 있도록 '18년까지 관련 법적 장애요인을 해소하는데 합의하고 각 회원국의 계획을 논의
- **(위규행위)** FSB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위규행위(misconduct)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유인체계를 제공할 수 있도록,
 - 금융회사의 보상체계와 지배구조를 검토하고 필요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기로 결정
- **(기타)** FSB총회는 중앙청산소 건전성 및 회생·정리 개선을 위한 지침 마련, 금융회사 정리체계 개선, 일부국가의 환거래 위축 해결 등을 위한 관련 국제기구 등의 작업 경과를 보고받음

※ 자세한 논의결과는 불임의 FSB측 보도자료(영문) 참고

참고

금융안정위원회 (FSB; Financial Stability Board)

1. 금융안정위원회(FSB) 개요

-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Board)는 G20으로부터 글로벌 금융시스템 안정 및 금융규제 개선의 임무를 부여 받아 G20이 정한 기본방향을 토대로 세부적인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협의체

- '11.11월부터 영란은행 총재 Mark Carney가 FSB 2대 의장 취임 중
 - * 초대 의장 : 현 유럽중앙은행 총재 Mario Draghi

FSB의 설립 경위

- (FSF) FSB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안정포럼(FSF : Financial Stability Forum)은 '99.4월 G7 재무장관회의 결과 금융 감독 및 검사 분야의 정보교환과 국제협력을 통한 국제적 금융안정을 추진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여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창설
- (FSB로 확대개편) '08년 미국발 금융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흥 경제국의 목소리가 대두되면서 G7이 주축인 FSF를 G20 국가가 참여하는 기구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09년 4월 제2차 런던 정상회의에서 FSB로 확대 개편에 합의하여 '09년 4월 출범

- (FSB의 목적) 주요국 금융당국, 국제기준 제정기구 등의 감독방향을 조율·선도함으로써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에 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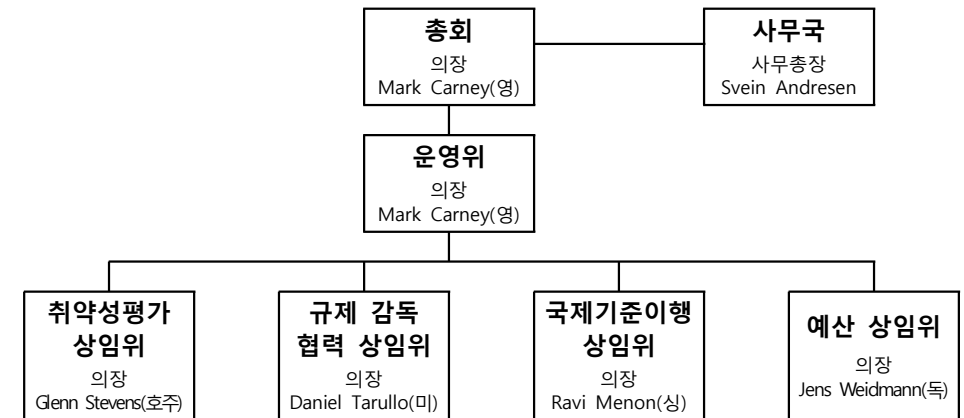
- 글로벌 금융안정성 제고를 위한 규제·감독 정책 등을 개발하고, 각국의 의견과 경험을 교환

FSB의 기능

- ① 금융규제정책에 대한 조언과 감시
- ② 금융규제기준 준수의 모범사례(best practice) 관련 조언과 감시
- ③ 국제기준제정기구(BCBS, IOSCO, IAIS 등)와 공동 정책개발
- ④ 공동감시단(supervisory college)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국가간 위기관리(cross-border risk management) 비상계획 수립 지원
- ⑥ 조기경보활동(Early Warning Exercises) 수행[IMF와 공조]

2. FSB 구성 및 한국 참여현황

- (FSB회의체) 모든 회원기관이 참여하는 총회와 주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운영위원회, 분야별 4개 상임위원회로 구성



- (회원현황) 24개국 및 EU*의 59개 회원기관(금융당국, 재무부, 중앙은행)과 10개 국제기구** 참여

- *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캐나다, 아르헨, 호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니, 한국,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남아공, 터키, EU (이상 G20) 및 네덜란드, 스페인,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 ** OECD, BIS, IASB, CGFS, CPMI, IMF, World Bank, BCBS, IAIS, IOSCO

- (참여현황) 금융위원회는 '09년6월 FSB에 가입하여 총회, 운영위원회 및 규제 감독 협력 상임위원회 등 참석

- 금융위원회와 공동가입한 한국은행은 총회와 취약성평가 상임위 참석
- FSB논의 참여를 통해 금융선진국과 국제기구가 정한 금융규제를 일방적으로 따르는 "rule taker"에서 국제 규범을 제정하는 "rule setter"로 위상 제고